

다산포럼

줄기세포 비망록(2)-거짓 위의 누각



황 상 익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학사

2005년 12월 16일, 황우석 당시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환자 맞춤형 복제배아 줄기세포'가 누군가에 의해 바뀌치기 당했다고 주장했고 22일에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 수사에 앞서, 그의 연구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풀기 위해 12월 15일에 구성된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이듬해 1월 10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요지는 '황 교수의 2005년 및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은 낱조되었고, 복제배아 줄기세포를 만들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정촌 특·특



윤 선 영 광주여자대학교 어린이영어교육학과

어느덧 2014년 끝자락에 다다랐다. 매년 12월 마지막 날, 자정으로부터 5분 남짓한 시간을 남겨두고 휴대폰 시계를 들여다보며 TV를 틀어 종신각의 '제야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기다려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기 고



김 형 주 광주김치박물관 학예사

마치 누에가 가느다란 실 가닥을 끊임 없이 토해내어 순백의 고치를 지어내듯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굴곡지고 유장한 삶의 궤적을 차곡차곡 이야기로 풀어내는 일을 구술(口述)이라고 한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줄기세포도 복제된 것이 아니라 미즈메디 연구소의 수정란 줄기세포'라는 것이었다.

황 교수의 수사 요청과 그 밖의 고발사건 등을 규명하기 위해 이듬해 1월 11일 서울지검에 설치된 특별수사팀은 5월 12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대부분 서울대의 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김진중 연구원이 미즈메디 연구소의 수정란 줄기세포들을 '섞어심기' 하는 방법으로 복제배아 줄기세포가 확보된 것처럼 가장했으며, 황 교수가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황 교수는 2005년 11월 18일 YTN을 통한 DNA 지문분석 결과를 받아보고 줄기세포가 뒤바뀐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10월 중·하순경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요컨대 김 연구원이 단독으로 복제배아 줄기세포가 만들어진 것으로 조작했으며(황 교수의 지시로 2개를 11개로 날조한 사실은 검찰도 거듭 확인했다), 황 교수는 그러한 사실을 이르면 10월 중·하순 늦어도 11월 18일에는 알았다는 것이

다. 황 교수가 최소한의 양심과 양식이 있다면, 또 자신이 누군가에게 속은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늦어도 11월 18일 즈음에 그 사실을 공표하든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가 그때부터 한 달 동안 한 일은 오직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복제배아 줄기세포를 내세워 호가호위했다. 지지자들의 열광적인 '피디수첩' 규탄 집회, YTN의 '청부 취재와 보도', '난자기증자 1000명 돌리기' 연구복귀 기원 진발래켓 행사, 대통령까지 포함된 고위인사들의 일방적인 황우석 비호, 급기야는 '서울대병원 임원국'까지 한국사회를 온통 광란으로 몰아넣는 일들이 이어졌다.

"황우석에 의한, 황우석을 위한, 황우석의 소동"이었다. 한 사람의 생각과 태도에 따라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 그랬던 그가 왜 갑자기 줄기세포를 바꿔치기 당했다고 주장하게 된 것일까? 물불 가리지 않는 온갖 방해 공작에도 12월 15일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목표'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

위의 '아르바이트하기'(48.0%)가 각각 차지했다. '장학금 받기'(46.5%), '독서 많이 하기'(45.2%) 등도 40% 이상 높은 응답률을 얻으며 꼭 이루고 싶은 새해 목표로 순위에 올랐다.

첫 번째는 무리한 목표설정이다. 체계적이지 못한 무리한 계획과 목표는 우리들에게 심리적 압박감과 부담감을 줄 수 있다.

두 번째는 동기부여가 없다는 점이다. 그저 막연하게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무엇을 위한 목표인지, 왜 달성해야만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자기 합리화'이다. 무엇이든 인내와 의지가 있어야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누구든 의욕이 넘칠 때가 있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때 일수록 더욱 자신에 대한 확고한 재직질이 필요하나 자기합리화를 통해 실패한 현실을 부정하려는, 또 다시 안주하려고 한다. 이것은 실패에 대한 마음의 일시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뿐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작심삼일'로 끝나게 되는 것이다.

지역원로 구술자료 기록화작업 서두르자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용한 의미미를 가지고 있다.

구술작업 추진의 시급성은 무엇보다도 근현대사의 거센 소용돌이를 지나온 지역원로들이 매우 연로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머릿속에 담고 있어 '걸어 다니는 박물관'이라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보배로운 존재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행은 한시라도 빠르면 빠른수록 좋은 것이다. 이러한 지역원로 구술확보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첫째, 지역사회·경제·문화·예술·인문 등 각 부문 원로들의 충실한 구술결과물의 총합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지역사 내지는 향토사 자료가 된다.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가 택한 길은 고백과 참회기 아니라 느닷없는 '바꿔치기'였다. 하지만, 일부 열광적인 지지자들을 제외하고는 이미 계도, 구력도 다 잃은 뒤였다.

복제배아 줄기세포는 만들어진 적이 없다.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그것을 만드는 '원천기술'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영릉이가 복제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다시 말해 영릉이는 복제 동물이 아니다. 한 달 보름 뒤에 태어난 한우 송아지 '진이'도 마찬가지다.

요컨대 '황우석의 성공 신화'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온통 거짓 위에 떠 있는 신기루일 따름이다. 그 허구가 재보자와 '피디수첩', 브릭의 집단지성과 그 밖의 숨은 노력들에 의해 속속들이 드러났다.

社說

취업 미끼 수십억 행진 기아차 노조간부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전·현직 노조 간부들이 취업을 미끼로 수십억 원을 행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4명의 간부는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취업을 대가로 30억 원대 이상의 돈을 받아 도박에 탕진했다고 한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2일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직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행진 혐의(사기 등)로 기아차 광주공장 전 노조 간부 홍호·이도씨를 포함한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교통법규 낙제점 시·도민들이 각성해야

광주·전남지역 운전자들이 기본적인 법규조차 지키지 않아 교통의식 수준이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작은 교통법규 위반이 인명 사고로까지 이어지고 결국 도시 이미지까지 해친다는 것을 생각하면 계도와 단속,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시급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남지역 운전자들의 운전석 안전띠 착용률이 70.4%로 전국 16개 시·도 중 15위로 최하위이고 그나마 지난해보다 15.8% 감소했다. 광주지역도 92.5%로 10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운전의 기본은 안전띠 착용, 신호준수 등 작은 교통법규 준수다. 교통사고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

명과 함께 회사 인건 모델 등지에서 122차례에 걸쳐 판돈 17억 원을 걸고 상승도박까지 벌였다. 홍씨 등은 도박으로 많은 빚을 지게 되자 취업사기를 벌였고, 행진 돈은 모두 도박으로 날렸다고 한다.

지난 2004년에 이어 이번에도 취업사기가 통했던 것은 노조 간부라면 취업이 가능할 것이라는 일반인의 잘못된 인식과 간부들의 파렴치한 작태가 맞물린 때문이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야 하며 관련자들에게 해산 엄히 죄를 물어야 한다. 기아차도 채용 과정에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지 따져보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무등산 타잔

1978년 출간된 소설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강제 철거를 당한 도시 빈민의 비극을 그리고 있다. 집을 철거당한 후 난쟁이 아버지는 추락사하고 자식들은 공장 노동자로 전락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난쟁이의 아들 영수는 인쇄소 노동자가 되어 옛날 노비문서를 조판하다가 "아버지만 고생을 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고생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無等鼓

무등산 타잔

배격해 환자들의 집까지 불을 지르자 헛간에 일을 저지른 것이다. 박홍숙은 수재였다. 가난 때문에 영광중학교에 수석으로 합격했지만 밥벌이를 위해 광주로 왔다.

박홍숙을 무등산 타잔으로 만든 것은 고단한 철거정재이었다. 전국체전을 앞둔 광주시가 체전 개막식에 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1980년 12월 24일 사형을 당한 박홍숙은 최후 진술에서 "태산은 한 줄의 흙도 거부하지 않고, 대하 또한 한 방울의 물도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는가. 세상이 돈 많고 부유한 사람만이 국민이고, 죄없고 가난한 사람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닌가"라고 울부짖었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고문의 062-227-960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